



## 우리나라에 유입 된

## 열대병 (熱帶病)

### 민 득 영

최근 조사나 보고에 의하면 이미 1970년도에는 박멸 되었으리라 믿었던 말라리아가 외국에서 유입 (流入) 되는가 하면, 강원도 일부 지역주민들 중 몇사람은 외국여행 경력이 없는데도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 또다시 말라리아가 번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많아졌고, 또는 외국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여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거나 없었던 열대풍토병 (熱帶風土病) 들이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어 86아세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커다란 국민보건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조사나 보고에 의하면 이미 1970년도에는 박멸되었으리라 믿었던 말라리아가 외국에서 유입 (流入) 되는가 하면, 강원도 일부 지역주민들중 몇사람은 외국여행경력이 없는데도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 또다시 말라리아가 번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실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 취업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물게 되는 경우 더욱 감염위험도가 높다. 회장, 사장이나 고급간부들이나 근로자이거나 열대병의 침범은 가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열대기생충병을 열거하고 간단한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말라리아 (학질)

말라리아는 해방후, 육이오동란 전후에 우리나라에 창궐했었던 것으로 40대 이후에서는 거의 경험했으리라 생각된다. 1950년도 후반기와 1960년도 전반기에 걸친 우리나라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거의 없어졌으나 월남전쟁때 많은 군인과 현지 한국인들이 말라리아로 고생했으며 근래에는 동남아세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

메리카 등지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감염되어 귀국후 치료받은 경우가 있다.

저자가 참여한 열대기생충질환조사 보고에 의하면 (커다란 종합병원기록만 조사했음) 1970년부터 1984년 사이에 국내에서만 107예의 말라리아감염이 있었고 그중 80예는 외국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것이었고 27예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주로 해외근로자와 일부 여행자에서 발견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서 발견된 것도 있었다. 말라리아의 국내발병은 1980년도에 더욱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 삼일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및 난형열말라리아로 구분된다. 주요증상은 열이 높고 오한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규칙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열대열말라리아의 경우 심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말라리아는 학질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열대, 아열대 및 일부 온대지방에 널리 퍼져 있으며 약 10억명의 지구인구가 항상 말라리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수십만 내지 수백만명의 어린이가 매년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학질모기가 있어서 언제 또다시 번질지 모를 형편이다.

예방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외여행때 또는 해외근무중에는 모기장, 모기향, 기피제를 사용하며 예방약을 꼭 복용해야 한다.피



▲ 저자가 참여한 열대기생충질환조사보고에 의하면 (커다란 종합병원기록만 조사했음) 1970년부터 1984년 사이에 국내에서만 107예의 말라리아감염이 있었고 그중 80예는 외국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것이었고 27예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리메타민(또는 다라프림)한 알로 약 1주일간 예방이 된다. 해외여행후 하루걸러서 정기적으로 열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철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2. 주혈흡충증

주혈흡충은 일본주혈흡충, 만손주혈흡충 및 빌하르쯔주혈흡충 등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빌하르쯔주혈흡충이다.

주혈흡충(住血吸虫)은 말 그대로 혈관에 기생하는 것으로 시냇물이나 웅덩이에서 일하거나 목욕할때 그 애벌레가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기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빌하르쯔주혈흡충은 주로 방광근처의 혈관에 기

생하여 피오줌, 방광염, 뇨도염, 때로는 방광암을 일으킨다. 주로 에집트의 나일 강유역과 중동지역에 흔히 퍼져있는 것으로 필자는 북에멘에서 귀국한 사람중 5명을 찾아 치료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더운 지방에서 일하다 간혹 시냇물에서 목욕을 했는데 그때마다 온몸이 따끔거리고 가려웠다고 한다. 이때 애벌레가 피부를 뚫고 들어온 것이다. 귀국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증세가 심해져 있을 때 필자가 치료하였다.

해외 여행중 아무 데서나 목욕하지 말고, 얇은 웅덩이에서 일할 때에는 꼭 장화를 신도록해야한다. 물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애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 개천이나 웅덩이에서 목욕하거나 일한 다음 몸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곧 의사를 찾아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3. 피부리슈마니아증

피부에 리슈마니아라는 기생충이 기생하여 피부가 헐고 때로는 박테리아 등 세균이 감염되 곪기도 한다. 주로 중동, 아프리카, 인도에 흔히 퍼져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18예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해외)에서 발병해서 치료된 사람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우기 이병은 가볍게 앓다가 자연치유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병은 샌드플라이(sand fly)라는 흡혈하는 파리가 매개체이다. 따라서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파리약을 뿌리고 긴

옷을 입는 것이겠다.

### 4. 칼라아자르(흑수병)

피부리슈마니아와는 다른 리슈마니아 원충이 샌드플라이를 매개체로 하여 인체에 침범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주로간, 비장, 골수, 점파계, 혈관세포등의 세포 내에 기생하여 세포를 파괴하여 여러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간이나 비장이 커지고 백혈구가 줄어들며 불규칙적인 발열을 보인다. 피부는 황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복수가 차고 약액질에 빠져 죽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한사람에서 발견되어 치료받은 적이 있다.

파리에 물리지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

○

해외여행중 아무데서나 목욕하지 말고, 얇은 웅덩이에서 일할 때에는 꼭 장화를 신도록 해야한다. 물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애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 개천이나 웅덩이에서 목욕하거나 일한 다음 몸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곧 의사를 찾아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 5. 광동주혈선충병

주로 동남아세어나 태평양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집쥐나 들쥐의 허파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인체에 침범하여 생긴다. 달팽이나 우렁이, 새우등에 감염되어 있는 애벌레가 이런 것을 날로 먹을 때 사람의 뇌나 척수에 기생하는것

으로 매우 위험하다.

심한 두통이 가장 많은 특징적인 증상이고 신경마비증상이나 뇌막염증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양어선 선원들이 남태평양의 섬에서 커다란 달팽이를 날로 먹고 집단적으로 감염되어 한 사람은 곧 죽고 10명은 급히 귀국하여 치료받고 죽음을 모면하였다.

해외여행중에는 절대로 날것을 먹지 않도록 해야한다.

## 6. 로아사상충증

주로 아프리카에 퍼져있는 기생충병으로 흡혈하는 파리에 물렸을 때 감염된다. 우리나라에는 물론 없는 것이나 최근 필자가 한 사람(아프리카에서 일하다 왔음)을 치료하였다.

이 기생충은 피하나 눈 주위에 많이 기생하는데 벌레가 자주 옮겨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열이 심하게 나고 벌레에 물린 주위가 크게 붓는다.

파리에 물리지 않도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 7. 포충증(단방조충증)

최근 몇년 사이에 5명에서 검출되었다. 이중 한 사람은 국내에서만 살아왔던 여자이고 나머지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귀국한 사람들에서 발견되었다.

이 기생충은 주로 개, 늑대, 여우등에 기생하는 것이나 사람에게서는 애벌레로 주로 폐, 간에 많이 기생하는데 커다란 낭포를 형성한다. 이상의 5명은 모두 폐에 주먹만한 낭포를 만들어 있었던 경우로 기침, 호흡곤란, 흉통이 주요한 증상

이러한 열대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에 체재하는중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모든 음식물은 익혀먹고 작업중 또는 휴식때 모기나 파리에 물리지 않도록하며 아무데서나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

이였으며 모두 수술을 받고 치유되었다.

초식동물(소, 양, 염소, 낙타 등)이 중간 숙주로 이 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또는 기생충알에 오염된 물이나 채소를 먹었을 때에 감염된다.

모든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먹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졌거나(말라리아) 없었던 열대풍토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열대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에 체재하는중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모든 음식물은 익혀먹고 작업중 또는 휴식때 모기나 파리에 물리지 않도록하며 아무데서나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 말라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그 매개체인 학질모기가 있으므로 언제 다시 말라리아가 퍼질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개인 뿐만아니라 사회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열대풍토병의 국내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필자=한양의대기생충학교실·의박〉